

**광주U대회 성공 개최 힘 모은다**

**“각국 선수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선수촌 경찰치안서비스센터장 김명선 경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광주 U대회 기간 선수촌 경찰치안서비스센터장을 맡은 김명선(56) 경감은 U대회를 앞둔 지난 23일 “지역경찰 32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단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종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이 맡는 선수촌 치안센터의 경우 오는 25일 현판식 이후부터 대회 기간 동안 선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수촌 내 도난·분실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 치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선수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안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5일 간 운영되는 선수촌 치안센터가 선수들이 쾌적하게 머무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림자’ 방법 활동을 펼치

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김 센터장은 1·2 치안센터 내 36명을 순찰인력으로 활용, 22개 선수촌 아파트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 145개국에서 1만3000명이 넘는 외국인 선수들이 광주를 방문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최도시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역용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는 계획 뿐 아니라 선수촌 내 통역 자원봉사자와도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김 센터장 설명이다.

김명선 센터장은 또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대회를 계기로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



**대한건축사협 광주시건축사회 ‘U대회 서포터즈’ 발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25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광주지역 건축사 회원과 건축 관련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광주건축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 행사는 회장 인사말과 서포터즈 활동계획 보고, 성공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선언문 낭독, 기념단체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명철 회장은 “서포터즈 참가자 여러분 모두 광주하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고 참석해 주셨다”며 “광주건축사 서포터즈단이 ‘열정, 꿈, 화합’이 넘실대는 광주 하계U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 서포터즈단은 오는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배구경기의 서포터즈에 나설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

**27일 광주·전남 외국인유학생 K-POP 콘테스트**

2015 광주 하계 U대회 성공개최를 지원하는 ‘광주·전남지역 외국인유학생 K-POP 콘테스트’가 오는 27일 오후 7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데미 소속 중국인 교사들의 우정 출연 코너도 마련된다.

광주 CBS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이지역 9개 대학에서 12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K-POP 노래와 댄스 실력을 겨루게 되며, 호남대 공자 아카

데미 소속 중국인 교사들의 우정 출연 코너도 마련된다.

데미 소속 중국인 교사들의 우정 출연 코너도 마련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성폭력 문제 회피 말고 적극 예방책 세워야”**

권인숙 명지대 교수 치유의 인문학 강연

**그릇된 시선에 피해자들만 고통 선정적 보도·대중 호기심도 한 몫**

“어떤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곳에 대한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 집단만 유별난 걸까요? 우리는 성폭력이 특정한 곳에서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그럴 일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구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군대다”, “결혼 전 물어야 할 한 가지” 등을 피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군사주의 문화, 여성을 억압하는 분위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권 교수는 ‘성폭력 트라우마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성폭력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하는 ‘2015 치유의 인문학’ 다섯 번째 강좌에 초청된 연사는 권인숙(52)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였다.

“어떤 여대생들은 살인보다 성폭행 피해자가 되는 게 더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며 아파해야 할까봐 죽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과연 어떤 대학을 선택했을까요? 밤 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권 교수는 지난 1986년 공안정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부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 당사자다. 부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서울대 의류학과 4학년이던 권인숙이 경기도 부천 한 업체에 위장취업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성고문을 당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왜곡된 수사결과를 내놨다. 또한 정부 부처들이 언론에 보도지침까지 하달한 사실까지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사후과정 연구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여성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권 교수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두려움이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이에 쉽게 반응하는 대중의 그릇된 호기심이 악순환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건 과정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신상에 대한 과도한 뉴스가 성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키운다고 밝혔다.



〈광주트라우마센터 제공〉

두 번째는 성폭력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이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예방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없고, 단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문제를 회피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성교육이 자녀의 호기심을 키울까봐 조심스러워하고, 학교 역시 입시에 도움이 되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있을 때 후자를 더 노린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여성의 노출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해 범죄를 일으킨다는 통념과는 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노출이 적은 옷을 입은 여성이 더 순종적이고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권 교수는 한국사회가 노출을 터부시하면서 정작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고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도 가해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큼이나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고통받는다며 말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인이라도 제공한 것처럼 바라보는 분위기 바꾸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공정기술 워크숍**



광주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은 24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광주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호남대 등 호남권 5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 산학협력을 위한 공정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대 제공〉

**광주광산경찰 평동산단 치안설명회**



광주광산경찰(서장 임광문)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단지 운영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평동산단 내 경찰의 주요 치안활동과 정책을 알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치안설명회를 진행했다. 〈광산경찰서 제공〉



서경덕 교수가 태국 참전용사들과 함께 감사광고 취지를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경덕 교수, 6·25 참전 16개국에 감사 광고**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참전국 16개국 페이스북 계정에 감사광고를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나라의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이번 광고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16개국의 수많은 참전용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5년 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올렸던 이 광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인에게 전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록셈부르크와 남아공 등 한국전쟁 참전국 누리꾼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마다 서 교수가 올린 감사광고를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영상광고를 함께 올린 후 16개국 참전국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전파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이의범·안성원씨 차남 민상군 박미경씨 딸 윤지영양=27일(토) 오후 3시 서울 마리아주스퀘어 3층.

대강당 2층. 주제는 바쁜사회 만들기 참석대상은 시민. 중식과 교재 제공 062-672-7410.

▲강대철·박현숙씨 장남 새한별군 김선우·유인숙씨 장녀 현희양=광주 피로연 27일(토) 오후 5시 금호웨딩의 전당(양동 금호생명 빌딩). 결혼식 7월 11일(토) 오후 2시 서울 법원종합청사예식장 2층 예식홀.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중친회**

▲진주 강씨 광주전남 총회(회장 강원구)명사초청 간담회=27일(토) 오전 11시 중회 회관 3층 대회의실 062-228-3368.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알림**

▲(사)법국민연의생활실천운동 광주광역시본부(회장 김형관)주관 강연=광주향교, 광주향교재단 후원으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향교 유림회관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

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지기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담자 조우상)

**모집**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지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가족지원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웅인=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

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협화음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자살위계중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봄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부음**

▲정정숙씨 별세 김시우·태오(대전 고등병원)·태형·민정씨 모친상=발인 26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문치임씨 별세 이태선·계수·명수·경순씨 모친상=발인 27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민자 님 (여/72세) 子/子婦 : 오준호·이정란, 막내/김정숙 女/婿 : 오갑순·지영봉, 명순·이현중, 은희/지동현 ●발 인 : 6월 27일 ●장 지 : 영락중원 ●연락처 : 227-4381	401호 故민영란 님 (여/77세) 子/子婦 : 박민호 女/婿 : 박재원/김준경, 재관/박명준, 회경/김연도 ●발 인 : 6월 26일 ●장 지 : 담양 월산선영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김호성 님 (남/75세) 子/子婦 : 김진영/가남희, 진수/여정숙 女/婿 : 김광만/나영만, 명희/김선문, 기화/이영란 ●발 인 : 6월 27일 ●장 지 : 영락중원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서준섭 님 (남/80세) 子/子婦 : 서기영/김영순, 기철/김미영 女/婿 : 서준만/김선용, 기화/이영란 ●발 인 : 6월 26일 ●장 지 : 영락중원 ●연락처 : 227-4386

孝 마음까지 원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弔 문의 (062)227-4000